**Project Iri**

**1.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

이리역 폭발 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약 60명 이상의 사망자와 13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당시까지 있었던 폭발 사고 중 최대 규모의 사고였다. 단순 수많은 사상자 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폭발로 인해 이리역 일대의 건물이 대부분 파괴 되었으며,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일련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화약의 화물 열차가 정식 책임자 없이 다량의 고성능 폭발물이 적재된 채 이리역에 운행 되었다. 폭약과 뇌관은 사고 방지를 위해 함께 운송 될 수 없었으나, 해당 규정은 무시되어 다이너마이트는 뇌관이 결합된 상태였다. 철도역 화차 배차 직원들은 당시 낮은 공무원 봉급으로 인해 ‘급행료’라는 명목의 뇌물을 철도 직원들에게 요구했으며, 역을 즉시 통과해야 하는 위험물이 적재된 차량이 그대로 이리역에 정차하게 된다. 호송원은 길어지는 정차로 술을 먹고 출입과 화기가 엄금되는 화물칸에 들어갔으며, 손에는 안을 밝히기 위한 촛불까지 들린 상태였다. 취기로 인해 잠에 들고 열차에는 결국 불이 옮겨 붙었다. 마땅한 소화기구가 비치되지 않은 화물칸의 불을 끌 수는 없었고, 대부분의 철도 요원들이 도망친 상황에서 소수의 검수원들이 소화를 시도했으나, 폭발을 막지 못했다.

**2.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1. papers, please**

2. 911 operator

3. 기차역스토리 (station manager)

4. Dealer’s life 2

5. Reigns

**3. 배경**

**#1. 군부 정치**

당신은 부패한 군사 정권 아래의 공무원으로서 철도관리부(가칭)에 배치 되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이리역(가칭)의 직원이 되었지만 지속되는 전쟁과 탄압 속에서 꿈이 넘치는 첫째와 어린 둘째, 노쇠한 어머니와 몸을 다쳐 휴직 중인 부인까지 부양하기에는 당신의 임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당신의 역을 통과하는 기차들에게 ‘급행료’를 받으면 오늘 저녁에는 둘째가 좋아하는 통닭이라도 사 들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급물자를 제 때 가져다주지 못하면 호송원은 꽤 애를 먹을 테니까요.

삭막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 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역 안의 추레한 개인 책상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곳에서 당신은 역 안의 요소들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잡상인을 쫓아내느냐 방치하느냐, 기차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묵인하느냐 고발하느냐. 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승인하느냐 급행료를 요구하느냐….

열심히 국가의 체제 안에서 일을 하던 당신과는 다르게, 장기화 된 전쟁과 팍팍해진 삶 속에서 태동하는 저항의 움직임 또한 존재했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와중, 당신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북부 전선을 향한 주요 보급로 중 하나인 이리역을 폭파 시키는 데에 동참하라는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짜증을 내며 끊은 전화기 옆에는 대한의 위대한 승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는 공문이 초라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혁명에 가담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올까요? 그 전에, 이 혁명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쩌면 정부에서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함정을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모두의 목숨을 걸고 혁명에 참여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낡은 역무원실 안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2. 황금만능주의**

돈, 돈, 돈. 빛나는 보석과 드높은 명품의 탑!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 않을 황금의 가치란! 자본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극단적인 이 사회 속에서 당신은 안타깝게도 벌이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섹터 – D에 거주하는 당신은 퀴퀴한 방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마당이 딸린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왔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던가요, 당신의 ~~탐욕~~성실함을 알아본 상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섹터 – D에 위치한 이리역(가칭) 배차직원을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섹터 – C 임시 구역에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곰팡이와 새는 물 없이 맞이하는 아침은 당신의 상상보다도 훨씬 쾌적하네요.

아직 심사중이긴 하지만, 섹터 – C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당신이 섹터 – E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몰라도, 어디 사람이라도 죽여서 강도질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소탈한 당신과 부인의 씀씀이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품위 유지’에 돈을 쓰지 않는다나요.

이러나 저러나 당신은 일에 익숙해져만 갑니다. 섹터 – D와 E의 노동자 계급들은 당신에게 깍듯이 경례하며 잘 보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당신에게 돈을 찔러주기도 합니다. 생애 처음 받아보는 뇌물의 맛은 정말 달콤합니다. 그러던 와중, 당신에게 두 가지의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섹터 – B-1의 알렉산드리아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인즉, 자신들에게 당신이 근무하는 이리역 주변 땅을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라도 매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폭파시켜 재개발을 앞당기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당신을 보며 코웃음을 치는 여자는 그렇게 간이 작으면 평생 이런 동네에서 박혀 살라는 말과 함께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제안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빛이 어두운 노동자들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제의를 받은 노동자들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당신에게 자신들의 화물을 검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세상은 잘못됐다나요.

섹터 – A냐, 섹터 – D냐. 어느 곳에서 폭탄과 비명이 터지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 샌드위치를 먹을지, 더 간단한 것을 먹고 돈을 아낄지 정도나 고민하던 당신에게는 너무 결정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4. 주요 등장 인물**

**#1. 군부 정치**

-플레이어

강력한 군사 정부의 통치 아래, 당신은 국가에 헌신적으로 사는 것만이 대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부인과 함께 가정을 꾸려 살아나가고 있었지만, 장기화 된 전쟁과 부인의 부상으로 수입이 줄어든 현실은 녹록지 않아 결국 열차 기관사와 호송원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부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보기 드문 지고지순한 여인. 아이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당신에게는 든든한 부인이고, 집에 계신 노모에게는 헌신적인 며느리입니다. 공장 인부로 일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었으나, 거기서 입은 부상으로 퇴직 후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모

지금보다도 대한의 상황이 훨씬 거칠었을 시절부터, 당신을 금지옥엽 길러온 어머니입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과는 다르게 방 한 켠에 앓아 누워 있습니다.

-첫째

똑부러지는 당신의 첫째 자식입니다. 변변한 사교육 없이도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지만, 가정형편을 알고 있는지 애써 아쉬운 표정을 숨겨가며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둘째

아직은 멋모르는 철부지입니다. 고리타분하게도 당신이 봉급날마다 사갔던 통닭을 좋아했습니다.

-김진석

헌병, 군탈체포조 중사입니다. 꽤나 여유롭고 껄렁껄렁한 스타일로, 좋게 말하면 친근하고, 나쁘게 말하면 꽤 예의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탈영병 중 상당수가 화물차 안에 숨어들어 탈영한다는 사실에 이리역(가칭)에서 단속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화물차 안에 숨어든 탈영병을 묵인하고 그들에게 뇌물 등을 받을 수도, 열심히 군에 협력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복칠

이리역의 역장, 즉 당신의 상사입니다. 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큰 바다’에서 노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그 욕심은 당신의 근무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그는 종종 뒷짐을 진 고지식한 태도와 표정으로 당신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러 옵니다. 당신의 책상이 부산스럽다면 아마 그는 좋아하진 않을겁니다.

-최정우

‘신대한결성회’의 결사라고 주장하는 청년입니다. 근무 중인 당신을 뜬금없이 찾아와서 결성회에 합류하라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정부에 충성하던 당신은 코웃음을 치며 돌려보냈으나, 근래 대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화 된 전쟁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갑니다. 교전국의 꽤 만족할 법한 협상안에도 여전히 피만을 원하는 것 같은 미친 행각에 당신은 그의 제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준휘

중앙정보부 소속 준장입니다. 최근 ‘신대한결성회’를 필두로 국가 내에서 크고 작은 내란이 일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격려’차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이리역(가칭)을 방문했다고 하나, 당신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감시하듯 훑어보는 것만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 보는 김진석 중사의 얼어붙은 표정과 긴장된 말투에 웃음이 지어지는 것도 잠시, 모자와 견장에 무려 별이 놓인 사람이 당신에게 성큼성큼 걸어와 ‘불순분자’를 발견한다면 즉시 보고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진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당신의 친구입니다. 미진의 아버지는 외국에서 작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부잣집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대해준 당신을 고맙게 생각하던 와중, 어지러운 정세에 당신의 해외 이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아이들

놀 거리가 없다며 역에까지 들어오는 천방지축입니다. 가끔 직원들과 친해져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고 간식거리를 얻어먹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직접 마주하기 곤란한 ‘거래’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도요.

**#2. 황금만능주의**

-플레이어

놀랍게도 당신은 섹터 – E에서부터 돈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삶을 점점 개척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과도한 ‘성실함’을 당신의 배우자는 걱정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하지만, 그 열망 덕에 현재 당신은 상부의 눈에 띄어 섹터 – C-3에 임시 거주하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섹터 – C의 주민들은 아래층 출신인 당신을 고까워하는 듯 합니다. 당신이 올라온 곳인 섹터 D와 E의 노동자들은 이제 당신의 근무지에 오면 당신에게 경례를 합니다. 벌이가 커졌지만, 번 만큼 써야할 곳도 많아졌습니다. 당신의 수익성을 상부에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물을 검수하려던 당신의 손에 크레딧을 쥐어주며 ‘쉿’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노동자에게서 당신은 아이디어를 얻어냅니다.

-부인

당신의 부인입니다. 당신이 섹터 – E의 추레한 노동자일 때 섹터 – D에 거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당신에게 ‘윗층’ 주민이었던 그녀는 지금껏 보지 못한 화사한 웃음과 친절한 태도로 당신을 대해주었습니다. 당신과는 달리 크게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고, 오히려 돈이 사람을 지배하지는 않았던 옛날 세상의 모습을 전해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섹터 – B-1 출신 여성입니다. 섹터 – C 생활에 나름 윤택해졌다고 생각한 당신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나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과 몇몇 동료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섹터 D와 E의 경계 지역, 다시 말해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이리역(가칭) 일대의 땅이 현재 판자촌으로 쓰이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것. 그들은 자그마한 ‘사고’가 있으면 그 곳을 재개발 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해 당신에게 그 ‘사고’를 눈 감아 주기만 하면 당신에게 땅의 일부를 싸게 넘겨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해 왔습니다. 아무리 돈에 대한 갈망이 강한 당신이어도, 이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리역(가칭) 일대는 당신이 섹터 – E의 거주민일 때부터 익숙한 곳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웃주민이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조소를 보내며 그녀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홉스

섹터 – D에 거주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기계와 컴퓨터를 다루는 데에 재능이 있던 그는 상위 섹터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다가 징역을 산 후 얼마 전 풀려났습니다. 그도 당신과 같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 받아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날을 꿈꾸고 있었으나, 어떤 험한 꼴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상위층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찬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락바텀

섹터 – D의 거주민들을 필두로 한 혁명집단입니다. 온갖 위험하고 궂은 일은 다 도맡아하게 되지만, 상위 섹터로 올라갈 수 없이 계속 멸시만 받는 사실에 지친 이들은 결국 혁명집단을 만들어 대규모 폭력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섹터 - D에서 생산된 공업품 등 물자를 나르는 기차를 이용해 상위 섹터에서 폭발 시키고 침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은 알렉산드리아를 필두로 한 상위 섹터에서도 방향만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엔딩**

**#1. 군부정치**

**dead end (기차 검열 중 튀어나온 극단주의자 대처 실패)**

**dead end 2 (1-B루트에서 마지막 선택지 ‘아니오’ 선택 후 시간 내에 전화기 선택 실패)**

**1-1. 빚더미 (가족들에게 돈을 소비해서 소지금이 0 미만으로 떨어짐)**

당신은 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징집되어 전선 유지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1-2. 가부장 (가족들에게 돈을 소비하지 않으며 소지금이 0 미만으로 떨어짐)**

지금 같이 나 하나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가족까지 챙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병든 어머니도, 다친 부인과 토끼 같은 자식들도 전부 떠나보냈습니다. 당신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징집되어 전선 유지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1-3. 실직자 (일일 수익과 상관 없이 단 1회도 정석적인 기차 검열을 시행하지 못함)**

당신은 무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역장은 당신을 경질시켰고, 당의 신뢰를 잃은 당신은 철도관리부(가칭)를 비롯한 국가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 반항아 (이복칠에게 경고가 3회 누적됨)**

당신은 무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반항적인 직원이었죠. 역장은 당신을 경질시켰고, 당의 신뢰를 잃은 당신은 철도관리부(가칭)을 비롯한 국가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국가에 반하는 정신을 가지고 국무를 방해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열심히 항변하는 당신의 주장은 무시된 채 당신의 사상을 교화하기 위해 당신은 수용소에 구금되어 노동형에 처해집니다.

**1-5. 방관자 (김진석과의 첫 조우에서, 혹은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준휘에게 최정우가 건네준 상징물을 제출함)**

당신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안을 어지럽히는 ‘신대한결성회’의 단원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신은 해임되었습니다. 곧이어 당신은 그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1-6. 오지랖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결성회 상징을 지닌 탈영병을 김진석에게 제보)**

당신은 신대한결성회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구금당한 탈영병은 지하실에서 당신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에 지쳐 최정우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자백 후 당신은 가차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1-7. 불순분자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박준휘에게 최정우가 건네준 상징물을 제출함)**

당신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당신은 전쟁 중인 나라 안을 어지럽히는 ‘신대한결성회’의 열성적인 단원으로 낙인찍혀 끌려가 처형당하고, 당신의 가족들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훌륭하지 못한 임무 수행 능력 덕분에, 국가정보부의 요원들이 신대한결성회의 폭파계획을 저지해냈습니다.

**1-8. 무능한 요원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열차 폭파)**

당신의 미적지근한 수행 능력에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신대한결성회는 이리역(가칭) 및 일대의 완파에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부상 당한 채 체포 및 처형당합니다.

**1-9. 인면수심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아이들이 건네준 화관을 박준휘에게 제출함)**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까지 팔았습니다. 더 이상 이리역(가칭)에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삭막한 곳의 한 줄기 햇살 같았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중앙정보부는 아이들만 의심하고 끝날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당한 뒤,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형당합니다.

**1-10. 박쥐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4개 시행한 뒤 박준휘에게 최정우가 건네준 상징물을 제출함)**

당신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이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끝내 신대한결성회를 배신했다는 사실도 이리역(가칭)과 함께 역사속으로 불꽃이 되어 사라집니다.

**1-11. 신토불이 (이미진과의 이벤트를 모두 수행 후 이미진을 제외한 아무에게나 여권 제출)**

당신은 국력에 가담하지 않고 몰래 대한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당신은 징집되어 전선 유지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은 노동을 통해 교화 당합니다.

**메인 엔딩**

**1-A.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1개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탈영병을 제보한 뒤 박준휘에게 신대한결성회 상징물 제출)**

당신은 대한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비록 신대한결성회와의 작은 접촉이 있었으나, 당신은 그들을 훌륭하게 색출해 내어 그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거점인 이리역(가칭)을 훌륭하게 경영한 결과, 당신의 상사 이복칠은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에 크게 만족한 이복칠은 당신을 그의 후임으로 적극 추천하여 당신은 그를 이어 이리역(가칭)의 역장이 되었습니다. 박준휘 준장은 자신의 소속 및 이복칠과의 연계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졌고, 김진석 중사는 신대한결성회의 테러를 막은 것으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더 나은 형편에서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의 유학을 위해 이미진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정부에서 첫째의 유학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에 당신은 오랜 친우마저 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B-1.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4개 시행 후 성공적으로 열차 폭파, 마지막 선택지에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선택)**

당신은 신대한결성회의 비밀결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신대한결성회를 필두로 새로 설립된 정부는 어지러운 내외 정세를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우선은 내란까지 일으켜 전쟁을 멈추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배상 정책을 표명하는 모습을 통해 일단락 되었습니다. 당신의 비밀결사 행적은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철도관리부(가칭)가 개혁된 한국철도공사의 임원진 및 이리역(가칭)의 명예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리역(가칭)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추모비 및 추모관이 건립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현 정부 또한 결국 쿠데타를 통해 이권을 잡았을 뿐이라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과 당신은 군사력의 공포를 통한 통치가 아닌 것에 감사하며 삶을 꾸려나갑니다.

**1-B-2. 이 한 몸 불살라 (신대한결성회의 임무를 4개 시행 후 성공적으로 열차 폭파, 마지막 선택지에서 ‘아니오’ 선택 후 업무 테이블의 전화로 후발 기차에게 연락 시도)**

당신은 신대한결성회의 비밀결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신대한결성회를 필두로 새로 설립된 정부는 어지러운 내외 정세를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우선은 내란까지 일으켜 전쟁을 멈추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배상 정책을 표명하는 모습을 통해 일단락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리역(가칭)의 폭파 직전, 후발 기차가 이리역(가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용역(가칭)에서 기차가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당신은 선로를 따라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열차를 발견한 후 윗옷을 벗어 온 몸을 사용해 정지신호를 보냈고 이윽고 당신을 발견한 열차는 멈추었습니다. 당신의 비밀결사 행적은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철도관리부(가칭)가 개혁된 한국철도공사의 임원진 및 이리역(가칭)의 명예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리역(가칭)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추모비 및 추모관이 건립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현 정부 또한 결국 쿠데타를 통해 이권을 잡았을 뿐이라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적으로 인해 신대한결성회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당신의 위대한 행적을 보도하는 뉴스를 봅니다. (진 엔딩)

**1-C. 난 친구빨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이미진과의 이벤트를 모두 시행 후 찾아온 이미진에게 여권 제출)**

당신의 친우는 자신과 함께 당신과 당신의 가족까지 무사히 외국으로 도피하는 데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쟁도 살인적인 노동시간도 없는 이국 땅에서 당신은 눈을 뜹니다. 햇살은 놀랍도록 눈부시고, 처음 보는 새들이 조화롭게 지저귑니다. 애석하게도 친우의 가족들은 당신들을 썩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말 통하는 이도 거의 없는 이국 땅에서 가족들이 살아남는 것은, 또 다시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구석 낡은 TV에서 나오는 고국의 뉴스, 전쟁과 탄압으로 피폐한 대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 황금만능주의**

**dead end (기차 검열 중 튀어나온 극단주의자 대처 실패)**

**2-1. 빚더미 (소지금이 0 미만으로 떨어짐)**

당신은 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맛을 보고 결국 섹터 – D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2-2. 게으름뱅이 (일일 수익과 상관 없이 단 1회도 정석적인 기차 검열을 시행하지 못함)**

당신은 무능한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해임된 당신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섹터 – C-3에 오자마자 나태해지는 당신을 보고 상부에서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2-3. 집으로 (상부에게 경고가 3회 누적됨)**

당신은 상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업무 환경을 해치는 잡품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해임되었고, 머지않아 섹터 – D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2-4. 도둑 (CCTV를 가리지 않고 공업품 절도 적발)**

당신은 중간에서 공업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당했습니다. 당신은 해임되었으며, 처벌 및 벌금 납부를 위해 체포되어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 낭만주의 (알렉산드리아와의 첫 대면 이벤트에서 아내가 선물해준 조각상 제출)**

당신은 당신의 열망을 보고 찾아온 상위 섹터의 요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세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당신은 해임되었고, 머지않아 섹터 – D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온 어느날, 동네 한 켠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2-6. 욕망의 항아리 (일주일 동안 모든 열차로부터 뇌물 수수와 상품 횡령을 하면서 가정에 0 크레딧 소비)**

당신의 아내는 분명 당신의 건실한 모습에 반했지만, 지금처럼 탐욕적인 모습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의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든, 그녀는 당신의 현재 모습에 질려버려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신은 혼자 남아 피라미드의 꼭대기만을 바라봅니다.

**2-7. 불순분자 (락바텀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상부에 락바텀의 존재를 보고)**

당신은 국가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비허가 폭력집단인 락바텀에 일조하였으며, 당신은 즉시 해임 후 노동형을 선고받았고, 당신의 부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8. 무능한 요원 (알렉산드리아의 제안을 거절하고 락바텀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마지막 날에 락바텀의 열차 통행 승인)**

당신의 미적지근한 수행 능력에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락바텀은 상위 섹터 침공에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상부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비허가 폭력집단인 락바텀에 적극 일조한 죄로 체포 및 즉결처형당합니다. 당신의 부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9. 박쥐 (알렉산드리아의 제안을 승낙하고 락바텀의 임무를 1개 이상 3개 이하 시행한 뒤 마지막 날에 락바텀의 열차 통행 승인)**

당신의 줏대없는 행동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꼬여버렸습니다. 교차하는 열차는 당신이 근무하는 이리역(가칭)에서 폭발해버렸고,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당신은 불꽃이 되어 사라집니다.

**메인 엔딩**

**2-A. 캐피탈리즘, 호! (락바텀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알렉산드리아의 제안 승낙 및 시행)**

세상은 차갑고, 충분한 자본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넘어 쌓일 정도라면, 더 말 할 것도 없겠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행히 당신은 이제 당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게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열차’를 탄 신세가 된 당신은 결국 성공적으로 당신이 근무하던 이리역(가칭)을 폭파시켰습니다. 그 일대까지도요!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리역(가칭) 일대는 신속히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그곳에는 일종의 ‘체험형 테마파크’가 세워졌습니다. 상위 섹터의 사람들이 빈민가의 삶을 은밀하게 체험해 보는 것이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당신은 그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자본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부인과는 헤어졌지만, 뭐 어떤가요! 당신의 손에는 오늘도 작은 골드바들이 들려있고, 그걸 팁으로 뿌리며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2-B. 역사의 기관차 (알렉산드리아의 제안 거절 후 락바텀의 임무를 4개 시행 후 성공적으로 열차 폭파)**

쾅, 참으로 시원하네요! 평생, 대를 이어서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철옹성, 섹터 – A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섹터 – D, E의 주민들은 상위 섹터로 돌진해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사람 위에 돈이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빈민층을 벌레보듯 했던 상위 섹터들이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고, 섹터 – C에 대한 문제를 상의 중입니다. 섹터 – C는 당연히 하위 섹터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불만이었으나,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겠어요? 그동안 핍박받아온 만큼, 이제는 고까운 놈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혁명의 주역이니까요!

**2-C. 저 푸른 초원 위에 (알렉산드리아 및 락바텀의 제안을 거절 후, 뇌물 수수 및 상품 횡령을 하지 않고 클리어)**

부인의 선물과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순수한 편지에 감명받은 당신은 그간 당신의 행적을 돌아봤습니다. 오로지 피라미드의 꼭대기 오르기에만 몰두했던 당신,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당신도, 당신의 부인도 이제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있습니다. 당신은 여느 때와 달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에 임했습니다. 비록 이 달의 최고 수입이나 남들과 같은 휘황찬란한 보석은 살 수 없었고, 상부가 알선한 이리역(가칭) 배차직은 잃게 되었지만, 당신은 예전과 같은 끈기와 생활력으로 평화로운 직장 생활을 하며 부인과 소소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2-D. 천상천하 유아독존 (알렉산드리아의 제안 승낙 후 락바텀의 임무 4개 시행, 양 쪽의 열차 통행 승인)**

좇이나 까라죠, 이 놈이나 저 놈이나 귀찮게 하는 것에 당신은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을 왜 그렇게들 불태우고 싶어하는걸까요? 뭐, 좋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소원을 이뤄줬으니까요! 이 놈이고 저 놈이고 전부 폭파시켜 아름답게 불타고 있는 광경을 보아하니, 당신의 속에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희열이 꽃 틔웁니다. 당신은 곧 그 광경들을 보며 황홀경에 잠깁니다. 당신은 지금껏 자신이 너무나도 우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실체도 없는 숫자들과 멍청한 종이쪼가리를 쫓아 살았다니요, 이 세상이 모노폴리라도 되는 줄 알았던 걸까요? 이제 당신은 더욱 숭고하고 찬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깨달은걸, 다른 모두가 보게 만들어야죠.